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 관람포인트!

●광주문화재단, 21-22일 금남로·비엔날레 일대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이 이번 주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올해 프린지는 오는 21-22일 거리예술축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양일간 금남로와 비엔날레 전시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프린지 '거리예술축제' 관람 포인트를 신혜원 프린지예술감독이 소개한다.

◇아스팔트 블루스·로망스 등 5개 소주제 총 22개 작품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거리예술축제'는 18개의 국내 작품과 3개의 해외초청 공연, 1개의 제작공연 등 총 22개 작품을 선보인다. 21일 공연은 금남로 1-4가 도로 위에서, 22일 공연은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2-3개 공연이 진행된다. 거리예술축제 작품은 5개 소주제로 나뉜다. 인생사의 다양한 면면을 들여다보며 아픔을 보듬어주는 '아스팔트 블루스', 사랑과 열정을 담은 '아스팔트 로망스', 도시 이야기를 담은 '아스팔트 보이즈', 유쾌함을 선사할 '아스팔트 코미디', 어린이를 위한 도식속 놀이터 '아스팔트 놀이터'다.



◇낙하산 등 오브제 활용...프랑스 예술가 이판 '나의 날개'
'아스팔트 블루스' 해외 초청작 중 하나로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랑스 예술가 이판의 '나의 날개'는 자신이 날개를 잃었다고 믿는 한 인물의 이야기다. 음악과 연극, 춤타기 등을 결합한 시적인 서커스 공연에선 첫주전자와 낙하산 등 오브제를 활용한다. 21일 오후 6시30분 금남로, 22일 오후 4시 비엔날레 일대에서 볼 수 있다.

◇길 위의 숨바꼭질...이동형 가극 '바람노리'
'아스팔트 보이즈' 공연 중 창작그룹 노니의 '바람노리'는 공연, 풍물, 도로변 등 평범한 공간에 바람처럼 나타나 여러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마주하는 작품이다. 길 위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전통악기 연주를 들려주며 공연이 끝날 즈음, 관객들과 공연자가 하나가 돼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낸다. 21일 오후 4시 금남로 네이비스퀘어 앞과 22일 오후 1시30분 역사민속박물관 앞에서 공연이 시작된다.



◇회전그네·대형인형 퍼레이드...누구나 즐기는 금남로 대형 놀이터
'아스팔트 놀이터' 프로그램인 '재미풍물 정글집'은 21일 단 하루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금남로 한국투자증권 앞 도로에 마련되는 도심 속 놀이터다. 인간동력 회전그네, 가변형 놀이기구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형 인형이 불시에 나타나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스페인 악사들과 함께하는 '올웨이즈 드링킹 마칭밴드'
'아스팔트 코미디' 일환인 올웨이즈 드링킹 마칭밴드 이 동형 음악공연 '거리는 우리의 것'은 스페인 초청 작품이다. 세계 각국 거리축제에서 인기가 높은 공연으로, 열정적인 8명의 악사들이 거리를 누비며 신나는 음악을 선사한다. 금남로에서 오후 1시와 6시, 비엔날레 주변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총 4차례 공연을 한다.

한편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주제는 '어쩌다 마주친... __'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는 거리공연을 함께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오는 28-29일 광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는 광주프린지 '스트릿댄스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심청전 뽕파어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재치있는 해학극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초청공연 '호랭이가 답작 물어갈 뽕파야'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1986년 지방 문화 기반 확충 및 종합 전당 마련을 목적으로 창단돼 현재 판소리, 한국무용, 국악 관현악을 총망라한 공연을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 음악의 보존과 계승, 국악 저변확대와 전문 국악인 후진양성을 위한 국악연수까지 운영 중이다.

이번 공연은 1981년 김일구 명창이 처음 만든 뽕파선이 원작이다. 시간이 지나 재각색해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뽕파가 심봉사의 마음을 휘두르고는 버린 죄를 받게 한다. 치유와 용기를 주는 동물인 호랭이가 벌받는 장면 등으로 많은 여운을 남긴다.

특히, 행상 사나운 뽕파와 그의 옛 애인 황칠이가 밀회하며 심봉사의 전 재산을 탐내는 코믹한 장면 등은 관객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214〉육십사괘해설 : 61. 풍택중부(風澤中孚)中

중부괘 초구의 효사는 '우길, 유타 불연(虞吉, 有它不燕)이다. 즉, '믿는 바를 신중히 헤아려 판단하면 길하다.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면(它, 他) 편안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중부지환(中孚之換 初動)	초효는 양위에 양효로 그 위(位)가 바르기 때문에 정의롭다. 육사는 유순 정위하여 음양 상응하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육사를 헤아려 신중히 판단해보니(虞) 나에게 편안하고 길(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니. 초구의 이러한 믿음이 변하면(有他)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다(不燕).
풍택중부	풍수환

상전에서는 '믿는 바를 헤아리면 길하다는 것은 뜻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 '초구우길 지미변야(初九虞吉 志未變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편안히 정도를 지키고 근신해야 한다. 알을 깨뜨리지 말고 잘 보존하는 시기다. 중부는 성의와 신뢰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 나가면 더욱 좋다. 신뢰의 마음이 변하면 안된다. '우(虞)란 '헤아린다'는 의미로 둔(屯)의 육사에서 '즉물무우(即鹿無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내인'을 말하는데, 금수(禽獸)는 초목(草木)과 잘 통하는 도를 알고 있어 틀린 일이 없이 안내를 잘 하기 때문에 사냥감을 많이 잡는다는 것이다. 즉, 초구는 육사와 상응(相應)해 믿음이 합해질 때 길(吉)을 얻지만, 마음이 딴 데로 움직이면 편안치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타(它)'는 태풍대과(澤風大過)의 구사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상대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마음이 향한다는 뜻이다. 제비는 믿음이 있어서 제비집을 지어 안심하고 안식(安息)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편안치 못하니 '불연(不燕)'이라 한 것이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초구를 얻으면, 잘 알고 있는 전문분야에 몰두하고 마음을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으면 잘 되고 발전하는 때로, 남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기, 운세나 사업은 본업에 몰두하면 정신적 원조재(六四) 등이 나타나 힘을 얻어 발전하니 방침을 바꾸거나 새로운 일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매수나 매도 등에서 거래처를 바꾸거나 하는 일은 절대 불리하다. 지망 등 바라는 바는 방침, 수단 등을 바꾸지 말고 속행하면 통달한다. 교섭, 담판, 거래 등은 다른 데로 의뢰하는 일없이 성신(誠信)과 믿음으로 일을 하면 이뤄지나 실제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전은 불리하다. 물가는 너무 높아서 조금 떨어진다. 여행, 외출은 일정이 없이 갑자기 문득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중도에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원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혼인은 혼처를 바꾸지 말고 절조를 특히 중시하면서 차근차근 서서히 진행해 나가면 성사된다. 임태는 마음의 동요나 신체의 혹사(酷使)로 유산의 우려가 있으나 임산은 평안하다. 병은 대열, 심장 관련 병으로 불안, 초조함이 없이 신체에 자신을 가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투병(鬪病)해 가면 평유(平癒)에 이를 수 있으니, 의사와 약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초구(虞吉, 有它不燕), 구이(鳴鶴在陰 其子和之), 육삼(得敵)”

〈우길, 유타 불연〉 〈명학재음 기자화지〉 〈득적〉

다. 기다리는 것은 소식이 있고 가솔인은 나간 곳에서 안거(安居)하므로 당분간 돌아오지 않으며 분실물은 위치가 바뀌어서 감춰져 있다. 날씨는 흐리고 비오며 여름은 소나기다. 운기, 운세나 재물점 등에서 초효를 얻으면, 중부괘는 세가 강한 발톱으로 부드러운 알을 보호하는 상이고, 위에서 겸손히 베풀고 아래에서는 즐겁게 받는 모습이다. 부(孚) 글자는 알을 품어 안고서 젓 먹이는 형상으로 반드시 낳는 이치가 있고 알은 점차로 커져 간다. 초효는 아직 세상에서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고 편안하게 하던 일을 계속하면 좋은 일이 있다.

중부괘 구이의 효사는 '명학재음 기자화지, 아유호작 오여이미지(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로 다. 즉, '학이 응달에서 우니 그 자식이 화답한다. 내가 좋은 술잔(벼슬)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와 함께 즐기자 한다'는 뜻이다.

중부지익(中孚之益 二動)	이효는 음위에 양효로 부정의 효이지만 하괘 태괘의 중(中)의 위치에 있어 양강(陽剛)하고 실(實)하기 때문에 같은 양효로 응하지는 않지만 중부의 주효로서 강건중정한 구오와 통한다. 효사의 나(我, 吾)는 구이의 어미 학 자신이고 너(爾)는 새끼 학 구오를 말하는데, 어미의 진실한 속마음, 즉 새끼에 대한 어미의 사랑과 헌신을 자식은 느낌과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음양 상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잘 통하고 믿는다.
풍택중부	풍리익

상전에서는 '그 자식이 화답하는 것은 진실로 원하기 때문이다'고 해서 '기자화지 중심원야(其子和之 中心願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자식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 이성이 생기고 특히 연애나 결혼에 좋다. 그러나, 중년이나 말년에 중부가 오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젊은 남녀라면 서로 간에 잘 통하니 전혀 문제가 없고 좋은 자식이 태어난다. 혹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효사는 명학(鳴鶴)이라는 어미 학의 우는 소리에 새끼 학이 답하는 것으로 인사에 비유하면, 내가 좋은 벼슬(술잔)을 가지고 있으나 혼자 독점하여 기뻐하지 않고 너와 더불어 함께 나누어 주고 싶은 진심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미의 명학과 새끼는 어떤 효를 말하는가?

구이와 응유인 구오의 효사에 '유부언여(有孚如)라 해 '믿음으로 그리워 화답한다'는 효사와 연관지어 보면, 중부의 때에는 서로 믿으려고 하는 정애(情愛)가 강하니, 구이의 아버지 학이 울면 구오 역시 이에 응해 우는 자식 학이다. 구이와 구오는 양강의 효로서 구이를 아버지 학으로 보고, 이에 응하여 화답하는 구오는 자식 새끼 학이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구이를 얻으면, 부자(父子)간의 애정의 은밀함처럼 남과 친해 상호 기쁨을 얻고 그 이익을 서로 나누는 때로서 애정으로 인한 정(情) 때문에 정사(情

事)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

구이는 기쁨을 남과 함께 나누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변괘 익(益)은 '밖에서 이익을 나누는 상'이 있음으로 남을 위해 일하고 그 보상을 얻는 때이기도 하다.

지망 등 바라는 바는 통달이 가능하다. 운기, 운세는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을 수 있고 남몰래 일했던 것이 알려져서 대가를 받아 행복을 얻는다. 사업, 계획 등은 부부(夫婦), 부자(父子)가 힘을 합쳐 협력하여 성공하나, 사업의 이익을 독점하지 말고 모든 사원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 지배인 등 좋은 협력자나 인재(九五)를 얻는다. 교섭, 담판, 거래 등은 이득을 본다. 주소에서 안정을 얻고 이전도 길하다. 물가는 낮은 가격에서 유지되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기미가 있다.

혼인은 서로가 의기투합하여 성사되고 길을 얻는다. 임태는 훌륭한 사람의 결정(結晶)이 생겨 모자 모두 건강하고 일가(一家)에 기쁨이 퍼진다. 병은 중풍, 주독(酒毒)에 의한 병, 방사과다(房事過多)로 인한 정력감퇴, 유전병 등 합병증으로 좀처럼 낫기 힘들다. 기다리는 것은 길보(吉報)의 소식이 있다. 가솔인은 정사관계로 나갔으나 남은 사람들을 걱정할 나머지 돌아오고 남자는 첩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것이 좋다. 분실물은 밝혀져 나온다.

'실점'에서 중부괘 구이를 얻으면 구이와 구오가 서로 화답하니 이성을 만나 성혼(成婚)하여 좋은 자식을 얻고, 하고자 하는 일은 구오의 도움으로 성사되며 합격과 관직(官職)의 검경사가 있다.

중부괘 육삼의 효사는 '득적, 흑고흑파, 흑음흑가(得敵 或鼓或罷 或泣或歌)다. 즉, '적을 만났으니 흑 북치고 진격하며, 흑 후퇴하고 흑 슬피 울며 흑 노래한다'는 뜻이다.

중부지소축(中孚之小畜 三動)	삼효는 양위에 음효로 부중부정의 음유한 소인이다. 육삼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자리인 까닭에 상대와 상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응을 막고 있는 자가 육사이다. 육삼은 육사가 같은 음으로 진비할 수 없고 상구로 가는 진로를 막고 있다. 이를 적으로 표현해 적을 만났다고 해 득적(得敵)이라 말했다.
풍택중부	풍천소축

육삼이 육사의 적을 만나 전개되는 상황을 때로는 북을 치고 공격해 승리하는 듯 하다가 다시 패배 물러나기도 하고(或鼓或罷), 또 때로는 적의 역습으로 두려워 울기도 하다가 멈추면 안심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或泣或歌), 위태롭고 불안한 모습으로 효사는 묘사하고 있다.

상전에서는 '흑 북치고 진격하며 흑 후퇴하는 것은 위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 '흑고흑파 위부당야(或鼓或罷 位不當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모든 감정이 타인과 외부조건에 흔들리고,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해 나아가고 물러섬에 일관성이 없다. 이성적으로 울고불고 사업은 앞치락뒤치락 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시기이다. 육삼의 효사는 믿음으로

성심을 다하는 중부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한 인간의 비애로운 삶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육삼을 만나면,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고, 이때는 확고한 자기 중심이 없이 경계망동하므로 진행되는 일들을 모두 포기하거나 보류하여야 하고 감정에 의해 모든 일들은 깨질 위험이 있으니 냉정을 찾아야 한다.

지망 등 바라는 바는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므로 통달되지 않는다. 운기, 운세는 감정의 굴곡이 크고 희비(喜悲)가 엇갈려 문제가 일어나고 이득에 눈이 멀어 부정을 범할 수 있으니 오직 냉정하고 자중(自重)해야 한다. 사업, 계획 등은 정해진 방침이 없이 망진(妄進)해 중도 좌절하거나, 불행할 자초해 남을 원망하고 그동안 모처럼 쌓아온 것을 잃어버릴 상으로 믿어 왔던 사람이 힘이 되지 않으니 포기하는 것이 좋다. 교섭, 담판, 거래는 중도에 흐지부지해 버리고 감정적으로 다투어 수포(水泡)로 돌아가며 상대에게 패하고 만다. 이전은 마음이 불안하여 어렵다. 물가는 고저를 반복하다가 높은 데서 안정을 얻는다.

혼인은 당사자가 연애에 빠질 수 있지만 싸워서 헤어지게 되고 부인은 바람기에 히스테리가 있다. 임태는 임신부의 히스테리, 정신착란 등의 고통이 있고 산기는 늦어진다. 병은 신경쇠약, 광기(光氣), 성격적인 병이고 마르거나 초조하여 길어진다. 기다리는 것은 반감을 품고 있어 오지 않고 가솔인은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로 나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돌아오지 않는다. 분실물은 찾기 힘들다.

'실점'에서 중부괘 육삼을 얻으면, 이성운은 울고불고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사업운은 앞치락 뒤치락해 손해보고 관운은 선진후퇴(先進後退)하며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때이다.

공직에 있는 모인 승진설이 있어 '승진 여하'를 문점, 입시해 중부괘 육삼을 얻었다. '중부괘의 외손(外甥)은 바람이고 내태(內兌)는 임이니 나의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상대 외사람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상이다. 이것은 나와 상대가 의기투합 돼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성의를 가지고 정성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삼의 상대인 상구는 음양상응하지 않으니 적을 만난 것이다. 이를 효사에서 득적(得敵)이라 했다. 이러한 만남은 교제에 정성과 믿음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이어서 흑고흑파 흑음흑가(或鼓或罷 或泣或歌)라 하여 관운(官運)의 진퇴가 반복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때이다.

따라서 중부의 패상처럼 '정성과 신의를 가지고 직무에 열중함으로써 승진하는 것이 아니니 결코 때 아닌 영달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인·도시계획학박사(062-654-4272)〉